

# “스토리 엮어가는 마음으로 연주”

###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 시작하는 현순이 광주대 교수

한 작곡가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들려주는 ‘전곡 연주회’는 많은 음악가들이 꿈꾼다. 젊은 연주자들의 도전에서는 패기를, 중견 연주자들에게는 연륜과 능후함을 기대하게 된다.

현순이(57) 광주대 교수가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를 시작한다. 오는 12일(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첫 공연을 시작으로 12월 11일, 그리고 2016년 두 차례 연주회가 더 이어진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곡 전곡과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로망스 4번과 5번’을 연주하는 대장정이다.



소나타 10곡·로망스 4, 5번 연주

12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첫 공연

12월 11일, 내년 두차례 연주 대장정

“에너지 넘치는 9번 ‘크로이처’ 가장 애착”

“전곡 연주회라고 해서 딱히 부담을 갖지는 않으려 한다. 독주회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시대별, 작곡가별로 배분하는데 그러다 보면 베토벤 소나타가 한국쪽은 들어가지 않았다. 연주를 하다보면 꼭 다시 해보고 싶은 곡들이 있다. 더 잘할 수 있어서 미련이 남는 곡이 있고, 정말 곡이 좋아서 다시 연주하고 싶은 곡도 있다. 새로운 부분을 끊임없이 파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곡들이 바로 독일 작곡가의 음악이고, 그게 베토벤의 음악이기도 했다.”

작품 연주 순서는 연대순을 따르지는 않았다. 12일 공연에서는 1번과 2번, 7번을 연주하며 12월 공연에서는 3번, 8번, 6번을 들려줄 예정이다.

“일주일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어느 연주회나 마찬가지다. (웃음) 전곡 연주라는 점을 감안해, 무언가 스토리를 엮어가는 마음으로 연주하려 한다.

바이올린 소나타는 베토벤의 작품 중 비교적 초기 작품이고, 보수적이다. 하지만 장래를 내다보는 음악적 영감을 내재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현 교수는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굉장히 힘들고 베토벤 다운 에너지가 넘쳐나는 작품”이라는 설명과 함께 9번 ‘크로이처’를 꼽았다. 가장 많이 연주한 작품은 5번 ‘봄’이다. 워낙 아름답고 유명한 곡이라 요청이 많다고 했다.

“베토벤 소나타는 자칫 디테일에 집중하다 큰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음악이다. 기술적으로 어려워 완벽하지 않으면 금방 허점이 보인다. 그러면서도 베토벤 특유의 박진감과 에너지를 쏟아내야 하는 곡들이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최선을 다할 뿐이다.”

베토벤 소나타는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대등하게 빛나는 작품이다. 그만큼 피아노

와의 호흡이 중요하다. 현 교수는 지금까지 호흡을 맞췄던 파트너 대신 새로운 파트너를 택했다. 젊은 피아니스트 서현일씨다.

“다른 음악가 독주회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서현일씨를 처음 봤는데 타건이 마음에 들었다. 바흐의 사콘느 변주를 주제로 기획 연주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미뤄지다 이번엔 전곡 연주회에서 함께하게 됐다.”

8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한 현 교수는 서울대 음대와 대학원을 거쳐 보스턴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아에서 석사 학위를, 코네티컷 주립대에서 박사과정을 수석했다. 미국 유콘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등을 역임했으며 금호현악4중주단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아리랑·통일 염원 23곡 음악극으로 부활

### 내뽕소리민속예술단 ‘아리랑을 찾아서...’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

아리랑과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가 어우러진 음악극이 선보인다.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2015광주아리랑 대축전 지역우수작품’ 두 번째 공연으로 내뽕소리민속예술단(대표 신경환)의 ‘아리랑을 찾아서...’를 9일(오후 7시30분), 10일(오후 5시) 두 차례 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아리랑을 찾아서...”는 분단의 현실이 낳은 아픈 사랑 이야기를 ‘씨줄’로 엮고 ‘통일바나나’부터 ‘아리랑 개천송’까지 모두 23곡의 노래와 음악을 ‘날줄’로 엮어 민족이 하나 되기를 염원하는 음악극이다.

오성원씨가 연출, 신경환씨가 음악감독, 박선욱씨가 안무를 맡은 이 공연은 정형화한 연주자들의 위치를 해체하고 마치 하나의 풍경 속에 녹아드는 무대 구조를 설정한 점이 두드러진다.

아리랑 우수작품 공연은 무료 관람할 수 있다.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cms/)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접수(jimin22328@hanmail.net)하거나, 전화 신청하면 된다. 공연

당일까지 관람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공연전시팀 062-670-7943, 7929.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무형문화재 이수자 총출동 광주서 공연

### 11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한국의 명인명무전’

동국예술기획(대표 박동국)과 아시아 문화콘텐츠시민네트워크(이사장 나경수)가 11일 오후 7시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제8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을 개최한다.

아시아문화콘텐츠시민네트워크가 시민문화공동체 활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공연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들의 원형보존과 계승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명인명무전을 한국의 전통문화보존과도 연결시킨 박동국 대표가 직접 기획·감독·해설을 맡았다.

출연진은 전국 규모대회 대령상 수상자, 대학교수, 무형문화재 이수자도 참여했다.

참가자는 경기검무의 임영랑(경기검무 이수자), 대구살풀이춤 이문순(대구살풀이춤 이수자), 심향무 윤송미(살풀이춤 이수자), 장고춤 김나영(정민류교향춤보존회 광주광역시지회장), 지전춤 김영옥(화개김영옥무용단 단장), 전주부채춤 장인숙(호남살풀이춤 보존회 회장), 승무 오은희(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입수건춤 허순선



장인숙 허순선

(광주대학교 교수), 가야금병창 황승옥(광주시 무형문화재), 진도북춤 김진옥(명지대학교 객원교수)씨 등이다. 문의 062-2299-02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아시아 춤의 재해석 13일 아시아 무용단 창단 공연

아시아 지역 대표 안무가와 무용수들이 아시아의 춤에 관해 새로운 해석을 선보이는 공연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공식 개관을 앞두고 아시아 예술 커뮤니티 조성 및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오는 13일 문화전당 극장2에서 아시아 무용단 창단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창단 기념작으로 선보이는 ‘아시아 슈퍼퍼포먼스’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아시아의 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

한 작품이다. 아시아 무용이 민속·전통, 모던·컨템포러리, 동양·서양 등 장르와 경계를 넘어서 공통된 문화적 정체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번 공연은 일본의 우메다 히로아키(Umeda Hiroaki)와 한국의 황수현이 안무가로 나서, 각 나라와 민족별 특성을 지닌 아시아의 춤에 대한 다양성을 공유하고, 정체성 등을 찾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선보인다. 문화전당은 그동안 아시아 무용단 창단공연을 위해 오디션과 워크숍을 실시해 왔다.

아시아문화원과 국립현대무용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무용 워크숍은 경기도 고양문화재단에서 지난 8월 말부터 6주간 레지던시와 함께 운영됐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한국 무용수 5명과 필리핀·스리랑카·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인도·라오스·중국 등 아시아 12개국 무용수들이 각 나라를 대표해 참여했다.

아시아 무용단 창단 공연은 전당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가격은 R석 3만원, S석 2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국립광주박물관 내일 밤 ‘가을 음악회’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이 ‘박물관 가을음악회’를 9일 저녁 7시 박물관 정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가수 구창모, 유익중, 자니 리, 테너 윤병길, 소프라노 안수경, 박수용 재즈 오케스트라 등이 출연해 클래식, 재즈,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색소포니스트 박수용 호남신

학대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박수용 재즈 오케스트라의 첫 무대를 시작으로 테너 윤병길(전남대 교수)이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Nessun Dorma)’, 가곡 주제 레온카발로(R.Leoncavallo)의 ‘아침의 노래(Mattinata)’ 등을 부를 예정이다. 미국에서 이미 성악가와 예술감독으로

서 인정받은 소프라노 안수경은 가곡 ‘코스모스 노래함’(이흥렬 곡), 프란체스코 파올로 토스티(Francesco Paolo Tosti)의 ‘세레나데(Serenade)’ 등을 들려준다.

재즈가수 자니 리는 자신의 대표곡 ‘뜨거운 안녕’·‘Fly Me to the Moon’·‘스카라게곡’을, 유익중은 ‘사랑,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사랑의 농동자’를 공연한다.

또 가수 구창모는 ‘희나리’, ‘처음 본 순간’, ‘어쩌다 마주친 그대’로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무료공연. 문의 062-570-702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사채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방수시공, 방수시공, 방수시공, 방수시공, 방수시공

홈페이지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개발소그 다양한하고 아름다운 패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광주·전남 大山 프리모 남가발

가능장1호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가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빌딩 3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스(인)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